

FEATURE



시정제

B-10

1995 제 11대 총여학생회

정책 자료집 1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이영화 한정효 선거운동본부



자신의 여성됨을
사랑하는
시대여성에게
이영화 한정효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드립니다.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

겹질에 몸을 담아둔채
더듬이만 내놓고

조금씩 기어가는 달팽이를 보셨습니까?

겹질의 무게를 견대기에는 너무 연약한 달팽이의 연한 몸,
가까운 곳은 감지하지만 멀리를 내다볼줄 모르는 짧은 시야,

혹시 우리는 달팽이를 달지 않았었나요?

이제 무겁고 딱딱한 겹질을 파괴합니다.

넓게 보고 멀리 보며 주위를 살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더 큰 세상으로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흔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가지 유형은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제 11 대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이영화 한정효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커다란 이야기만 하지도 않고 작은 이야기에만 묵매달지 않으며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낼 것입니다.

공통 10월 10일 10시 10분

공통 10월 10일 10시 10분

공통 10월 10일 10시 10분

공통 10월 10일 10시 10분

공통 10월 10일 10시 10분

공통 10월 10일 10시 10분

공통 10월 10일 10시 10분

공통 10월 10일 10시 10분

공통 10월 10일 10시 10분

공통 10월 10일 10시 10분

공통 10월 10일 10시 10분

공통 10월 10일 10시 10분



중여학생회장 후보 이영화 (좌) 부중여학생회장 후보 한정효 (우)

이영화 (환조 3) 한정효 (환공 2)

- | | |
|--------------------|------------------|
| 1972 서울출생 | 1974 순천출생 |
| 91 계성여고 졸업 | 93 순천여고 졸업 |
| 92 환경조각학과 입학 | 환경공학과 입학 |
| 과내소모임 사함터 활동 | 과내소모임 자원재활용팀 활동 |
| 제 28대 총학생회 선전부 차장 | 공대동아리心心풀이 활동 |
| 93 제 9대 총여학생회 선전부장 | 94心心풀이 회장 |
| 사함터 회장 | 순천여고 동문회장 |
| 94 과여학생회장 | 과여학생모임 물바람 총무 |
| 제 11대 총여학생회장 출마 | 제 11대 부총여학생회장 출마 |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제 11대 총여학생회
그림글:영화,정효 그리고 일천여학우의 첫만남

여유로운 삶, 어울어지기

건강한 삶의 표출, 여학우들의 자신감 찾기

여성/사회, 세상보는 눈키우기

자주 만날 수록 가까워지고 이해할 수 있다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세상을 둘러본다

생활을 만들고 함께 품어갑니다

웅기종기 모여 같이 생각하고 토론해 보아야 할 이야기들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제 11대 총여학생회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94년 시립대의 여학우가 750여명에서 1000을 육박하며 의미있는 숫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립대의 20%를 여학우들이 차지하고 있다거나 산술적인 어떤 합계의 중요성보다는 그 개개인의 구성인들이 저마다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러한 다른 모습들이 만나는 총여학생회에서 어떠한 어울림을 창조해 낼 것인가. 우리대학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많이 침체되기도 하고 우리들이 개개인으로써 해체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더욱 활발하게 소규모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영화 한정효는 자신의 삶으로부터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눈높이 맞추기로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자치기구라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하나의 다른 목소리들이 독특하게 어울어질 수 있고 총여학생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과 비판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각합니다. 일천여학우 개개인과 그들전체를 아우르는 힘! 이영화 한정효 선거운동본부는 그런 다른 모습의 정체나 내면화가 아닌 그것들을 자신감 있게 펼쳐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발산들을 하나하나 학우들의 모습을 살려내며 조화를 이뤄가고자 합니다.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펼쳐나가는 총여학생회로의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며 5천 시대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움직입니다. 편가르기 같은 유치함이 아니라 바른 것으로 학우들을 만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허공을 맴돌 뿐 조금씩 더 학우들의 사고와 목소리로부터 멀어져가는 학생회를 봅니다. 단순히 중요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학우들의 관심과 다가섬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無에서 有가 창조될 수 없듯이 학생회는 학우들이 사고를 전개시키고 자신의 목소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학생회의 공개와 수렴의 자세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에 있어 풍부하고 직접적이며 실질적이어야 하고 학생회실에 앉아 학우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간접적인 만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반쪽의 불완전에서 전체의 불완전으로... 온전한 하나를 위해

여성문제는 무척이나 민감합니다. 그러기에 말도 많고 제대로 보기도 힘들기도 합니다. 편가르기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도 쉽습니다. 여성문제는 여성들이 만드는 문제도 아니고 남성들이 만드는 문제가 아닌 만큼 여성만이 짚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수치적으로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압니다. 여성문제의 이면이 아닌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남성들의 고충과 의식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뿌리박혀있는 편견들을 없애나가는 것도 생각합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학우들뿐만 아니라 학생회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무겁고 딱딱한 껍질을 켜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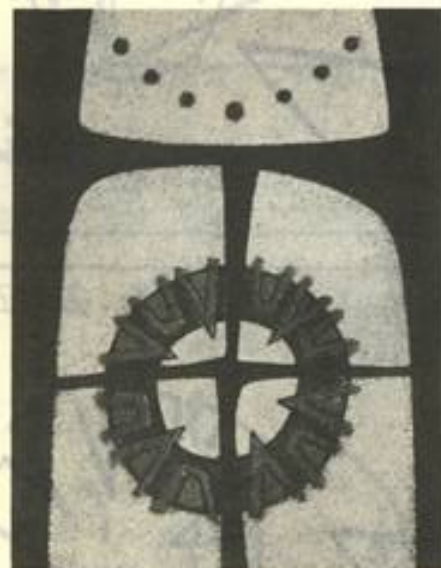
총여학생회에서는 언제가부터 끈덕지게 협의의 여성문제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좀더 커다랗게 보고 넓게 사고하는 법을 잃은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의 강박관념으로 작용합니다. 눈에 띄게 여성문제나 여학우들의 생활과 관계되지 않은 것을 다룰 때는 소심해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틀을 벗어납니다. 전체 속에서 여성을 찾아나가는 것이 다시 반대로 꼬여 여성만을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여학생회라는 것은 잊지말아야겠지만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갖지 못한 학생회는 학우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영화 한정효는 그런 상처에 메스를 대어 고름을 짜내고자 합니다. 여성으로의 삶을 폭넓게 바라보며 여성으로 뿐이 아닌 한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찾아나갈 것입니다.

이영화 한정효가 준비하는

제 11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학생회로서 총여학생회의 강함과 자신감 그리고 섬세함을, 우리대학의 여성문제 혹은 성문화를 이야기하는 중심체로서 총여학생회의 올바른 중심을 지켜나 갈 것입니다. 내년 총여학생회는 우리학교내에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만들어지는 흐름에 대한 적극적인 결함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찾을 것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기반으로 하여 제 11대 총여학생회는 건설되고 여학우들 그리고 우리대학 전체학우들과 좀더 풍부하게 결합해 나갈 것입니다. 처음은 낯설고 어렵지만 그런 낯설음으로부터 새로운 일치를 형성해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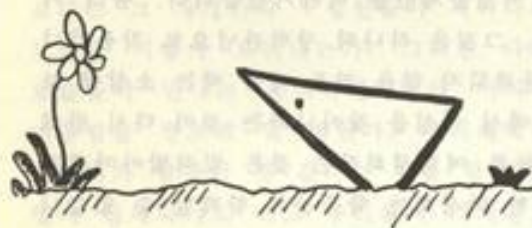


산디 93 0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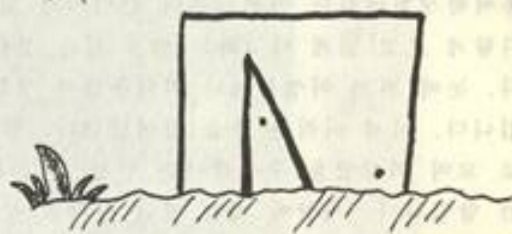
영화. 정호
그리고 일천여하
우의 첫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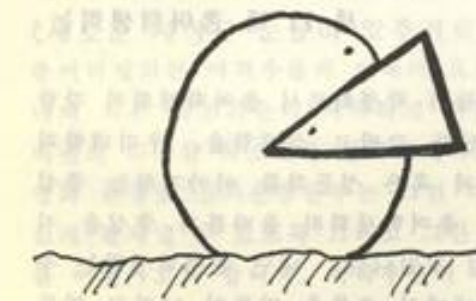
따로 따로 서있는 하우.
무언가 함께 할 것을
기다리고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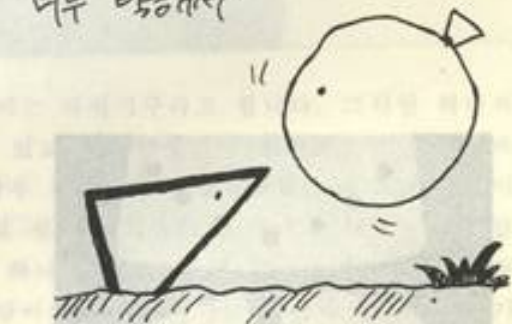
어느날 마에 드는 것을 만났
게만 들은 듯하게 끌려 자기들을
찾지 못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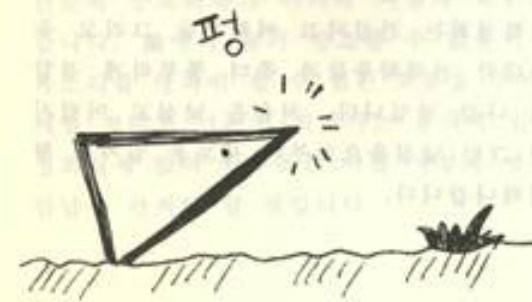
함께 해볼만하면 자기의 모양을
볼라 수 없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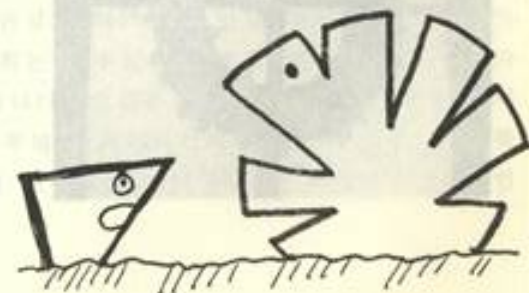
어떤 것은 무엇을 하기엔
너무 약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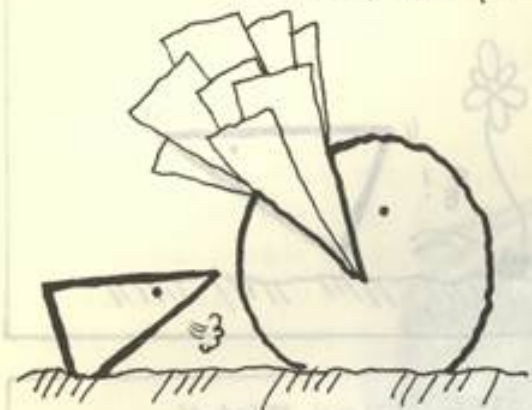
끝났네.



어떤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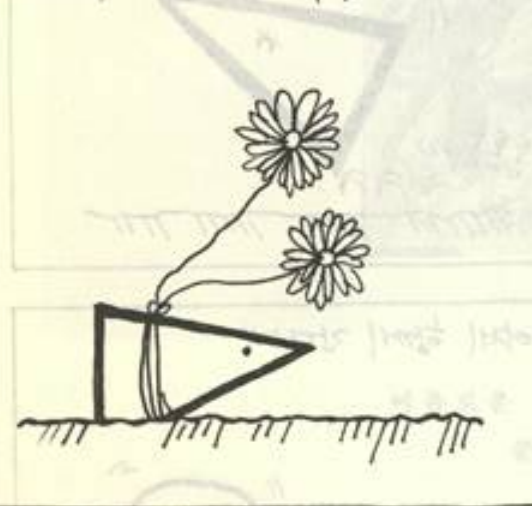
어떤 것은 너무 화려만 하려 하네
(너무 겁났네!)



어떤 것은 하우를 관찰만 하려
하고...



그래서 하우도 변해 불려고 애써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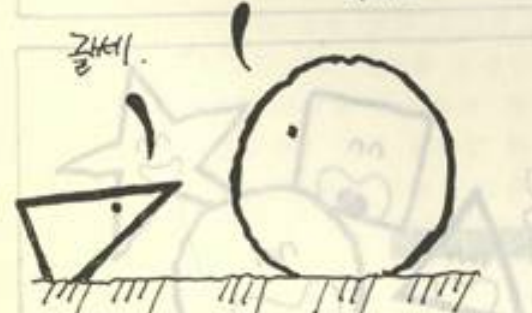


형된 것이었네.



그러다 영화. 정호를 만났네.

다른 모습을 없애려하면
안돼. 너의 모습을 살리며
우리 함께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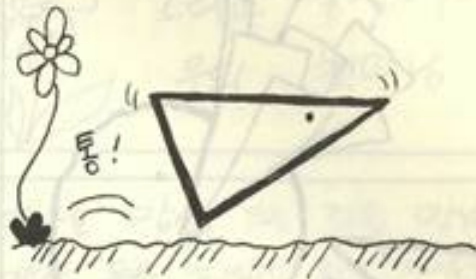
하우는 혼자 생각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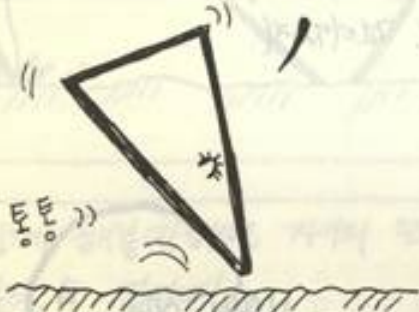
자신의 독특한 모습을 살리기 위해
한 발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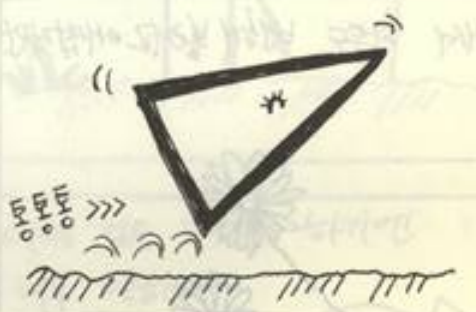
두 발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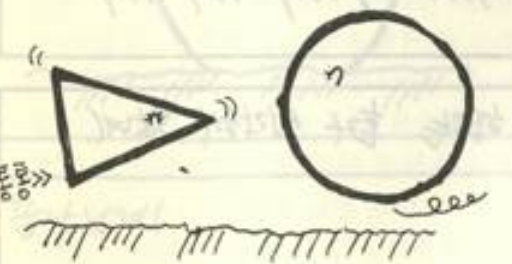
이제 나아갈수 있겠다
나도 할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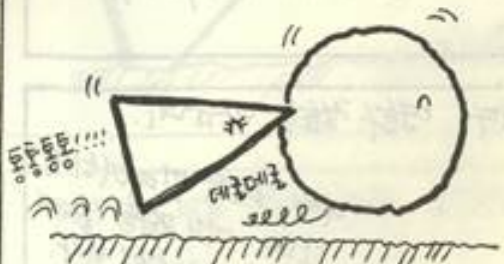
학우는 힘차게 뛰었네.



학우와 영화.정철가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으로 함께 만났네.



이제 함께 가다네



저마다의 개성을 살리며
독특하게 어울리는 영화.정철가
만들 제 11대 총학생회
와 함께 해요!



「보통」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세상보는 눈 키우기

문화생활



여유로운 삶, 어울어지기
문화생활

가상의 삶으로 현실의 삶 비춰보기 : 영화제 / 영화비평모임

풍부한 교양, 세상보는 눈 키우기 : 문학비평모임

다른 사람들의 같은 무대 : 시대여성한마당

이영희, 현성호, 신기문동문부

가상의 삶으로 현실의 삶을 비춰보기

영화제
영화비평모임

대학가 주변에 '00방'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 쉽게 이용하고 즐기는 것이 비디오방이며 바로 영화보기입니다. 영화보기가 보편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매체 자체의 특성, 총체적이고 다양한 현실접근의 가능성과 관점에 따라 다르고 색다른 눈으로 사물이나 사회, 스스로를 보고 또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삶의 미메시스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여정과 이상, 믿음이 담겨지고 사회의 모든 구성과 이데올로기, 모순들이 집합합니다. 영화는 어떤 사실의 왜곡이나 진리의 전달이기보다 다양한 삶의 가치를 담습니다.

한달에 한번으로 정기화

제 10대 총학생회에서 두차례의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학우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이러한 영화제를 정기화시키고 안정화시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좋은 영화를 본다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페미니즘 영화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는 시각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들이 함께 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영화제 '한울빛'과 공동주최

총학생회는 우리학교 영화제 '한울빛'과 같이 방을 씁니다. 영화제는 영화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한울빛' 친구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한울빛 친구들도 함께 하고 싶어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합니다. 한울빛과 시청각교육원의 기자재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영화읽기를 위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되지요? 함께 고민할 끼리를 만들고 영화에 대한 소개와 다른 문화에 대한 정보도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관심있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다면 보람있지 않을까요? 이런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영화제를 할 영화도 선정하고 토론도 해볼 수 있는 영화비평모임을 만듭니다.

풍부한 교양, 세상보는 눈키우기

문학비평모임

책을 좋아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제 10대 총학생회에서 2학기에 했던 설문에 의하면 전공서적, 잡지등을 제외하고 우리학교 여학우들의 평균독서량은 3.2권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평균독서량보다 높은 수치를 높습니다.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학우들이 모여서 자신의 느낌을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지요?

자기토로, 진한 교감

이런 학우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봅니다. 솔직한 자기토로와 서로의 교감을 나누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 시 ... 페미니즘 문학도 좋고 다른 좋은 책이라도 상관없겠지요. 작은 모임의 활성화를 꾀합니다.

총학생회에 있는 작은 방에서,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같은 무대

시대여성한마당

92년까지 있었던 여학생 수련회 '큰들살이'와 93년의 진단과 모색을 발전적시켜 시대 여학우가 하나될 수 있는 자리로 시대여성한마당입니다. 올해 시대여성한마당은 10월말에 열렸고, 도전! 기네스, 선배간담회, 여학생노래경연대회와 비디오상영등이 3일간 펼쳐졌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참가한 학우들의 밝고 진지한 모습, 그리고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햇살 따뜻한 4월에

시대여성한마당을 좀더 풍부화하고 많은 학우들의 다른 모습들이 같은 무대에서 펼쳐지고 어울어질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모습에서 독특한 어울림으로... 10월에 전 농체전, 중간고사와 겹쳤던 것을 햇살이 따스하고, 신입생들에게 여학우들이 함께 한다는 것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도록 4월 초로 옮겨 여학우들의 발산과 화합의 자리로 만들어 갑니다.



드러내기, 어울어지기

4월 초 하루를 잡아 활발한 여학생들의 모습으로 한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 시대여학우들이 신나게 어울어질 수 있도록 / 신입생들이 여학생모임이 필요하고 왜 좋은지 느낄 수도 있도록 / 전체여학우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프로그램을 풍부화시켜드립니다. 공동작품만들기, 단체릴레이, 꼬마야 꼬마야 등 함께 하는 놀이를 강화하고 선배간담회와 같은 다른 시기, 다른 공간에 적절한 프로그램은 옮깁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통나무자르기 제기차기 등은 전농체전 기간에 합니다.



같은 글 같은 뜻 1

남이와 북이



남이와 북이

"너 이금만 넘어오면 죽을 줄 알아"

김일성의 죽음,

북미회담의 성과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남과 북이

어린 아이들의 땅따먹기놀이 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죽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구요? : 전봉채전
슬픈 현실이지만 스스로 지켜야죠 : 호신술 강좌

- 14 -

10월이 돌아오면 여학우들의 함성소리가 들린다. 전농체전 여학우들의 활기찬 모습은 산뜻한 느낌과 더불어 여학우들도 몸을 움직이고 함께 뛰면서, 소극적이고 비주체적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합니다. 처음 족구를 할 때는 서브도 제대로 못넣었는데 이제는 날카로운 공격까지 자유자재로 해내는 모습은 익숙하지 못했던 축구공과 친해지고 과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으로 뛰는 여학우나 응원하는 여학우 모두에게서 나타납니다. 물론 경기를 할 때에 잘 안모이고 빼기도 하지만, 할 때는 즐거워 하고 이길때나 질때나 울고 웃는 어느 여학우의 모습을 보며 자기를 드러내고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선은 이미 존재하는 여학생경기를 여학생들에 맞게 고쳐나가고 안착화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발아구팀은 구성이 안되어도 족구팀은 구성되는 경상대, 법경대, 공대 등 여학생들이 적은 과 여학우들이 한두명씩 끼어서 하는 것이 아닌 누구든 하고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는 것부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농체전에서 여학우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경기는 별로 없습니다. 여학우들이 잘 할 수 있고 익숙한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10대 총여에서 준비했던 피구는 여학우들이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해보았던 것이고 재미있게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94년에는 소개도 잘안되고 시험기간에 겹쳐 잘되지는 않았지만 물리대의 여학우들이 많은 과를 중심으로 우리학교의 실정에 맞게 시범경기로 시작하여 터전을 닦아 나갑니다. 그러다보면 족구가 그러했듯 정착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여학우들의 참가 기회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94년 여자팔씨름장사에 이어 95년에도 여자장사를 뽑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스스로 지켜야죠

호신술강좌 10월
10월 10일 10월 10일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성폭력, 인신매매 등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경험 여대생들이 8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 자신을 방어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밤거리를 두려워하고 구두발자국 소리에 긴장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도 자신을 지켜갈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개인적인 극복노력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긴문제는 길게 바라보고 움직여야 하고 생활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 나름대로 터득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검도 24반 무예

동국대, 고대, 이대 등에서는 '민족검도 24반 무예'라는 무술 경당에서 호신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15인이 넘으면 출장강습이 가능합니다. 당장 이화여대처럼 공식 강좌화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총여학생회와 학우들이 함께 한다면 호신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학복위에서 여러가지 외부 강좌를 유치하는 것처럼 총여학생회에서 호신술 강좌를 준비합니다. 호신술 강습에 경험이 많은 경당에 출장강습을 부탁하고 학교에 있는 체육관에 학우들이 모여 호신술을 배웁니다. 일주일에 한번 호신술을 배우는 것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겠지요.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체력을 단련시키는 기회가 될 겁니다. 시립대 내에 건강한 여자들의 기합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을까요?

신나게 놀아보자구!

놀이문화개발

몸이 뻑적지근하고 움직이고 싶을 때

여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는 힘듭니다. 남학우들만 하던 족구를 여학우들도 가끔 하는 것처럼 다른 할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학교를 보면 여학생문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번 시대여성한마당때 무호도 하고 제기차기도 해서 여학우들이 기뻐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놀이들을 일상화한다면 좋겠지요.

할거리 찾기

독특하고 긍정적인 여학생문화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총여학생회에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전통놀이에서부터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우리

한글교과서 1학년 1학기 1차시

한글교과서 1학년 1학기 1차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옛날과 지금에서 차이가 난다.
단순히 학생들의 이기심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
학점과 취업의 노예가 되어가는 우리들이
작게나마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한글교과서 1학년 1학기 1차시

한글교과서 1학년 1학기 1차시



여성 / 사회 세상보는 눈키우기 학술

열린 지성, 껍질의 파괴 : 열린 대학
정보야 나오너라! 우리들의 작은 정보센터 : 정보센터
혼돈을 뚫고 잔잔히 내리는 빛 : 여학생전문지 '햇살'

이영희 권선효 전기운동본부

열린 지성, 편집의 파괴

열린 대학

총여학생회가 개최하는 열린 교육의 자리로 여성학교가 있습니다. 여성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생활 속에 얽혀있는 여성으로서의 문제들을 짚고 극복하는 공간으로 우리 대학안에 있는 여성학 강좌와 함께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도 제 2회 여성학교가 있었고 영상자료도 보고 강연도 듣고 대학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총여학생회와 학우들의 공동모색 공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달려진 가능성에서 열림으로〕

달려진 가능성과 여성학에 대한 한없는 열매임은 총여학생회를 족쇄처럼 묶어놓고 다양한 영역으로의 접근을 차단해왔습니다. '작년과 달라지고 발전된 모습이 없다', '왜 총여는 현상적인 여성문제 이외의 것은 다루지 않는가'라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머무르고 고이는 것은 썩기 마련입니다. 끊임없는 흐름과 사회를 보는 시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열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세상보는 눈키우기〕

좀더 풍부하고 생활적 접촉을 통한 구체적인 이해와 대화로의 여성학과 세상에 대한 밝은 시각을 위한 사회 각영역에 대한 접근을 통해 함께 배우고 깨치는 자리로 열린 대학을 준비합니다.



정보야 나오너라! 우리들의 작은 정보센터

정보센터

총여학생회가 자리를 찾기시작하면서 학우들의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우리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현대사회와 여성', '철학의 이해' 등의 강좌에서 리포트나 발표를 준비하는 친구들, 대학원 논문을 준비하는 선배들, 여타의 여성단체에서 도움 구하고 싶은 친구들입니다. 책에서 자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단체들의 연락처 등 총여학생회는 부족하나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이 아직도 빈곤하고 한정적입니다. 또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도 않아 한번 자료를 찾으려면 허둥지둥 몇사람이 달려들기도 하고 간단한 자료하나를 위해 몇번씩 발걸음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공부에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풍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턱 낮추기〕

또 한가지 학우들이 총여학생회에 오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찾으려는 오게되지요. 총여학생회의 문턱낮추기를 위한 작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에는 작은 방이 있다. 회의실로 쓰이고 가끔 여학생모임의 세미나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이방을 하나의 정보센터로 만듭니다.

〔정보찾기〕

여성학자료, 취업정보, 문화정보, 여성단체 등 필요한 자료를 풍부하게 정보찾기를 체계화시킨다.

여성학에 대해서 성, 가족, 매매춘(기지촌), 교육, 페미니즘문화, 법, 노동 등 여성과 관련 맺고 있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세세하고 체계적인 분류, 사회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취업정보, 삶에 윤기를 더해줄 문화정보,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각종 단체 정보 등을 모아서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있는 공간을 이용하고 좀더 풍부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총여학생회와 학우들의 만나는 장소를 만듭니다.

〔덧붙임〕

총여학생회에 있는 작은 방이 정보센터가 되더라도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벽쪽으로는 열람할 수 있는 각종 정보가 있고 가운데는 탁상이 놓여져 있어 사람들이 앉아서 자료를 읽을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지요.

혼돈을 뚫고 잔잔히 내리는 빗

‘여성’전문지 햇살

93년에 ‘햇살’ 4호가 부활되었습니다. 햇살은 우리학교 내의 다양한 여성문제에 대한 흐름과 변화의 상을 그려보고 총여학생회의 일년간의 활동에서 중요한 일이나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나눔의 자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보통 ‘햇살’을 총여학생회의 기관지라 이야기합니다. 여학우들 서로의, 그리고 총여학생회와의 만남과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총여와 여학우의 구체적 만남은

그러나 일년에 한번 나오는 햇살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 올해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신문이 정기성을 띠도록하여 학생회의 민주적인 공개와 수립의 자리가 된게 한다면 일년에 한번 나오는 햇살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겠지요.

역할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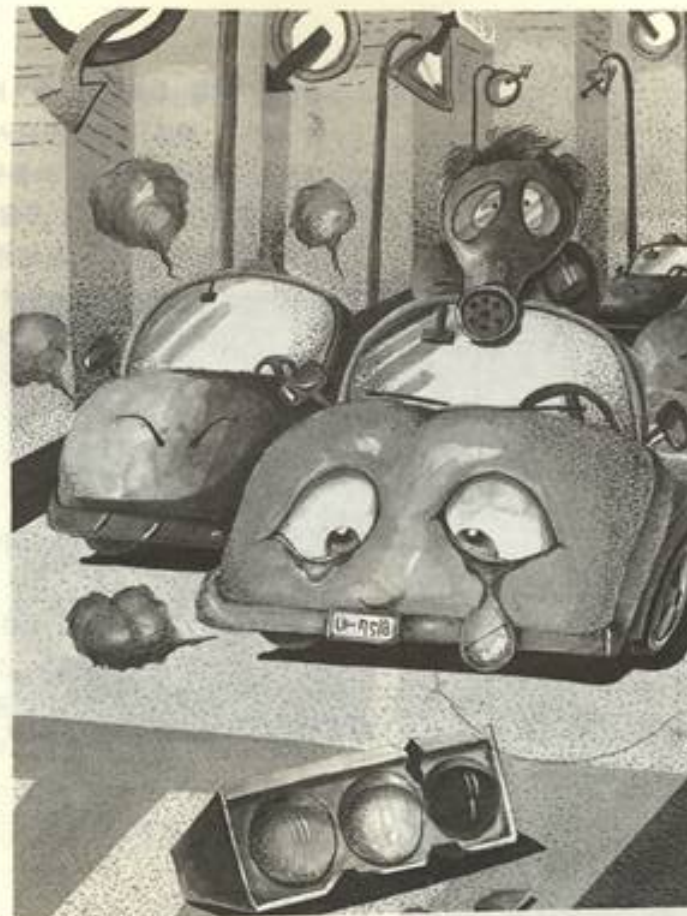
이제 ‘햇살’의 역할을 바꿉니다. 그야말로 여학생전문지가 되겠지요. 고려대의 석순과 성균관대 정정현은 우리가 꿈꾸는 전문지와 비슷합니다. 다양한 여성문제에 대한 흐름을 잡아나가고 여성학에 대한 이해로부터 세상에 대한 이해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9대에서 부터 시작된 성에 대한 무수한 담론을 올바르게 정립해나가고 / ‘현대사회와 성’, ‘철학의 이해’ 등의 개설강좌를 통해 잔잔히 일고 있는 여성학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채워 줄 수 있고 /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좀더 깊이있고 풍부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함께 이야기하며

‘햇살’을 이전처럼 총여학생회 집행부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 여성학 등에 관심있는 학우들이 일하기 초부터 편집위원형식으로 만나 일년동안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든다면 더욱 좋겠지요.



같은 글 같은 뜻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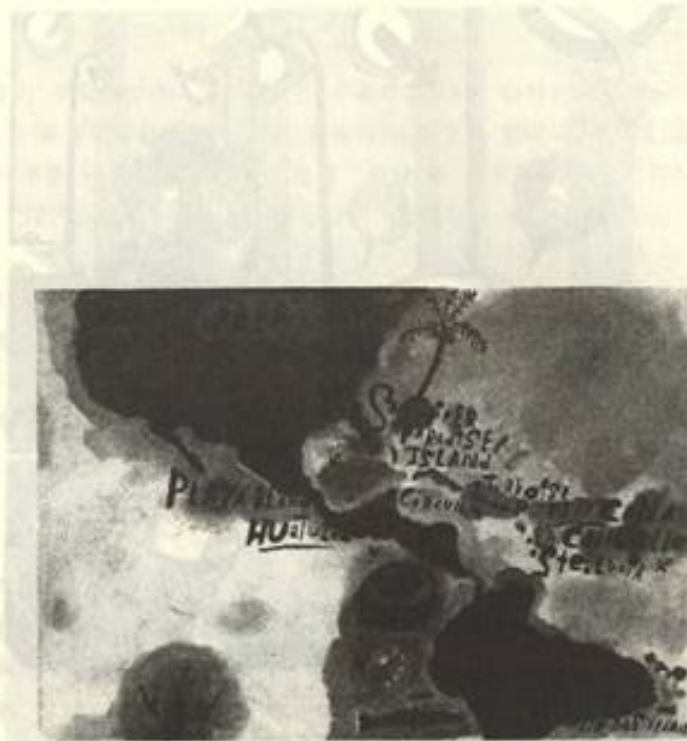
악속위반

핀란드 남성의 정자수가 한국인 남자의 두배나 된다고 합니다.
공해때문입니다.

점점 세상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더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주 만날 수록
가까워지고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 풍로

저마다의 개성, 자유로운 어울어짐 : 총여학생회 신문
조그맣고 조그만 이야기 : 화장실 선전
서로의 목소리 확인하기 : 의견수렴

이영희 권성호 전기운동본부

10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세차례에 걸쳐 신문을 발간하였습니다. 시대여학우들 간의 그리고 총여학생회와 여학우들의 만남의 자리로 신문은 총여소식, 여학우들의 모습, 여학생모임에 대해서 그리고 취업정보와 생활을 구속하는 통념을 깨뜨려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이지 못하고 내용도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서로를 느끼는 자리
얼마만에 한번씩 연속성이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번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움줄 수 있는 내용들이 고정란으로 들어가며 그때 그때 필요한 내용들로 채워지는 그런 신문이 되도록 합니다. 한명한명 서로 다른 학우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자리,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일치의 기쁨을 느끼는 자리로 신문을 만듭니다.

투명한 학생회, 다양한 의견 수렴

학생회의 활동이 투명되어 학우들이 과연 총여학생회가 무엇을 생각하고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도록 합니다. 흔히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회를 찾기는 힘듭니다. 신문은 학생회의 의사통로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여타의 정보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회와 학우들의 거리를 좁혀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1면 1. 여학생회 소식
2면 2. 여학생회 소식
3면 3. 여학생회 소식
4면 4. 여학생회 소식
5면 5. 여학생회 소식
6면 6. 여학생회 소식
7면 7. 여학생회 소식
8면 8. 여학생회 소식
9면 9. 여학생회 소식
10면 10. 여학생회 소식

〔총여학생회 신문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 표지는 우리학교 여학우들의 모습을 담습니다.

● 총여는 지금!

아무리 많은 선전을 한데도 총여학생회가 하는 일을 잘알기는 힘듭니다. 독특한 어울림이 있는 공간 총여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학우들에게 투명한 학생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입니다.

● 나를 드러내고 우리가 되는 자리

우리학교는 일천여학우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다른 여학우는 어떻게 살까? 무슨 생각을 하고 뭘 기뻐하고 또 무얼 힘들어하는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작은 공감을 형성해나갑니다.

● 여학우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영문학과 시나브로에서는 이런 토론의 자리가 있었다더라, 도공과 여강에서 회지 '여강'이 나왔고 내용은 이렇게 있다더라, 어디는 이런 문제때문에 모임이 잘 안되고, 어디는 이렇게 하니까 모임이 잘되고 즐겁더라 하는 그런 생생한 소식을 전합니다. 여학생모임 간의 이해의 통로를 만듭니다. 모임이 없는 여학우들에게는 함께 하는것이 왜 필요하고 좋은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사회진출가이드

올해 세번째 총여신문에는 졸업선배로 듣는 사회이야기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을 고정란으로 만들고 내용도 풍부화합니다. 선배들은 사회진출을 어떻게 했는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선배가 하고 있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분야에 대한 정보까지...

● 쟁점!

사회에서 논란 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우리학우들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이야기의 진행을 알아봅니다. 사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과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Q&A

우리 사회에는 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제대로 알기는 힘듭니다. 또 포르노나 기타 의 비공식적인 것이외에는 기회가 마련되지도 않습니다. 왜곡된 성지식이나 잘알지못하는 '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총여학생회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 그리고 여타의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는 글과 함께 배워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소개, 그때그때 마다 필요한 기사를 기동력있게 취재할 것입니다.

조그맣고 조그마한 이야기

화장실선전

총여학생회에서는 화장실을 시립대 모든 학우들과 만나는 자리로 이용해 왔습니다. 여성문제에 대한 시사라든지 총여학생회 사업 소개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이용해볼 수 있을까? 선전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생활 속에 당연한 듯 자리잡는 통념과 부딪치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극복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안정될 수 있고, 학문으로의 여성학이 아니라 생활 속의 여성학을 학우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서로의 목소리 확인하기

의견수렴

학생회는 학우들의 목소리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대동제기가에 10대 총여에서 릴레이 하이텔이라고 지상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여성흡연, 대학문화 등에 대한 주제이지요. 장난스럽기도 하고 욕을 쓰기도 했지만 그러한 이야기봉로는 있어야 합니다. 학생회가 학우 하나하나를 만날 수 없기때문이지요. 30대 총학에서는 학생회관에 화이트보드를 걸어 놓았습니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지요. 앞에서 잘한 것은 배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총여학생회 의견란을 만들겠습니다. 총여학생회활동에 대한 것과 여성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학우들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안되지요. 그것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생각과 고민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란이 있고 그옆에는 총여의 이야기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삶과 삶 : 부딪침과 깨우침

기지촌활동



포주에게 빚지고 도망간 어머니를 둔 스테파니는 어렸을 때, 밖에 나가지 않도록 묶어서 살았습니다. 놀이방에 오면 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고 옷도 낡은 것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묶여 있던 기억때문에 자꾸 멀리가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핑돌았다는 어느 기차대원의 말을 들으며 아! 이런 삶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없이 맑게 커야 할 아이들의 눈이 눈치를 살피고 격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가면 스킨십과 사랑을 요구하는 아이들로 부터 우리들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중 우리사회의 어둠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첩된 성모순이 얹혀있다는 우리 사회에서 노골적이고 성모순이 극대화되어있는 매매춘 여성들의 삶이 있습니다. 매매춘여성들은 그렇고 그런 여자이기 때문이라든지,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들 개인의 문제라고 우리 삶으로 부터 분리시켜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단순히 그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성의 굴레가 그들은 더 죄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다시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또 만약 그들이 삶이 동떨어져 있다해도 우리 주변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 삶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회의 그늘에 묻혀 사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부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자리!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가는 자리!

❖총여활동 중 가장 참가하고 싶은

매년 해왔던 기지촌활동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총여학생회 사업중 가장 참가하고 싶은 것이 기지촌 활동이라는 설문결과도 있고, 시간이 잘 맞았으면, 일년에 한번만 가지 말고 여러번 갈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들과 바람을 모아 기지촌활동을 안정화시키고 풍부하게 만듭니다.

❖한달에 한번 진짜 연대할 수 있게

일년에 한번 방중에 가거나 올해처럼 주말에 딱 한번밖에 없었던 것을 한달에 한번 금, 토일을 잡아서 안정적으로 찾아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의 어느 부분과의 만남과 연대는 한번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정말 깊이 있는 만남과 강한 연대를 위해서도 정기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기지촌활동에 참가하면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한달에 한번 금,토일에 동두천 다비타의 집으로 갑니다.
기지촌 아이들과의 만남과 놀이방활동
비디오와 잡지, 자료등을 이용한 솔직한 성교육의 자리
매매춘 여성들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이야기자리 - 클럽방문

❖변화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가면 매매춘 여성과 함께 생활하고 잠도 같이 자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놀이방에 못가고 관심도 못받아 일주일에 다섯번은 교무실에서 벌을 선다는 점은 피부와 동그란 눈을 가진 수일이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공부방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많은 사람의 만남을 위해

기지촌 활동은 한번에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에 참가하고 싶은 학우들이 못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비타의 집뿐 아니라 막델레아의 집이나 두레방 등 다른 기지촌활동장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학내 후원회

기지촌활동에 가지 않는 학우들은 무엇을 할까요. 학내 후원회를 조직합니다. 기지촌활동에는 참가를 못하지만 매매춘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것으로 학우들에게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바꿔내고 아이들을 위한 책과 장난감, 문구류등을 모아줍니다.

새로운 시각/뜻뜻한 인정/삶의 이야기들

농촌활동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농촌을 찾아갑니다. 농민분들과 만나기 위해서지요. 올해 농활을 보면 분반활동보다는 개별적인 만남이 두들어졌던 것 같고 농활대도 많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농민분들과 좀더 알찬 만남,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총여학생회도 많은 준비를 하고 학우들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연대활동의 폭은 더 넓어져야 합니다.

연대활동은 기활이나 농활처럼 직접 생활인들과 접하는 것 이외에도 여성단체 등 여타의 사회단체와의 교류, 그리고 여대협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고용평등 등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좀더 풍부하고 생동감있는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실질적인 움직임들을 형성하는 것도 총여학생회의 중요한 몫이겠지요.

젊은 글 젊은 뜻 5



'참'의 회복

요즘 우리 사회를 '참'의 상실시대라고 불러봅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것은 사라지고 가짜가 판을 칩니다. 참인간, 참스승, 참정치인, 참친구, 참교육, 참사랑...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진짜를 찾을 수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진짜가 되어 봅시다.

선배가 들려주는 사회 이야기

사회진출에의 길찾기

여유와 치열함의 자기개발

류성희 도시행정학과

아마도 드레싱스 호텔

사회진출가이드

총여학생회에는 신문을 만듭니다. 신문에 선배님과과의 지면 간담회가 들어갑니다. 이는 단순히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선배님의 직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에서부터 사회생활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실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배님이야기가 들어가고 우리대학 여학우들의 모습이 담겨지는 신문을 각 기업체로 보내 홍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측에만 대책을 세우라고 하지않고 우리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학교라면 무언가 해야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않는 학교에 대해 학생회가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교측에서 준비되어야할 취업정보실의 강화와 취업대책위의 건설과 학교홍보 문제에대해서 지속적인 제기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용평등을 위해

취업문제의 극복은 개인적인 노력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들만으로 사회진출에의 장벽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취업문제는 그만큼 고질적인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위한 길에 총여학생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고용평등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여성민우회등 사회단체와의 연대의 손을 내밉니다. 직접적인 움직임을 만들지는 못할 지라도 적어도 우리학교에서 부터 의식을 바꿔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군복무자 가산점제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근거와 올바른 방향제시로 고용에 있어 불합리한 점들을 우리 사고 속에서 고쳐나가고 그것으로 부터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유로운 삶, 꼼꼼이 점검하고 펼쳐내기

생활 복지

복지는 학우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복지총여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며 애썼던 탓인지 여학우들의 복지수준은 그래도 어느정도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좀더 여유롭고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남은 과제들이 있겠지요.

총여학생회집행부들은 휴게실청소나 기타의 이유로 휴게실에 들어가면 절망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이 마신 종이컵이나 본 신문에서 부터 사위실의 속옷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이지만 청소하는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로운 복지 영역보다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총여학생회 집행부의 책임 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과 총여학생회집행부들이 함께 한다면 아마도 언제나 깨끗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학생회관 휴게실은 이렇게 바꿉니다.

정수기 설치

이번 추경예산에서 들어오는 5개의 정수기중 하나가 학생회관 1층함에 설치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론 부족하지요. 게다가 여학생들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간식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아쉽지요. 학생회관 휴게실에는 수도가 있습니다. 멀리적거리고 보기 흉하기도 합니다. 이 수도에 정수기를 연결하면 훌륭한 식수대가 될 것입니다. 시설과에 이야기해서 정수기를 설치하고 그것이 안되면 총여학생회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아르바이트생

휴게실에 들어가면 편안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청소와 관리가 잘안되서죠. 안정된 관리를 위해 학복위와 이야기하고 복지위원회에 건의해서 관리아르바이트생을 둡니다. 총여집행부들이 관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밖에도

휴게실의 자리가 부족해 몇사람이 앉으면 이용할 수 없고, 조명시설이 낡아서 눈이 아프고, 잠자는 방에 있는 이불은 너무 더러워 덮으려면 껌을 적습니다. 었을 거리도 부족하구요. 이런 문제는 관심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 조명이 나갔다고 찾아온 여학우가 있었고
형광등을 들고가 여학우들과 함께 갈아끼웠습니
다. 여학우 스스로 자기의 이용공간에 신경쓰고
총여학생회가 함께 한다면 언제나 깨끗하고 쾌적
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 휴게실 이렇게 좋아합니다.

※스텝 2대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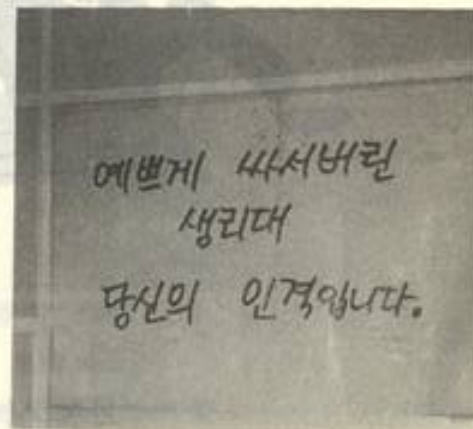
도서관 휴게실이 올해 정비되었습니다. 칠도 다
시하고 칸도 나누어 잠잘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읽을 거리와 알
림판도 배치했습니다. 커튼도 새로 달았구요. 그
러나 겨울이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히터가
망가졌기 때문이지요. 그 히터가 올해 두대로 늘
어 가동됩니다.

※창문형태바꾸기/환풍기설치

휴게실에 가면 항상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신선한 공기도 필요합니다. 창문이 앞으로
당겨여는 것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면적이 적습니
다. 창문을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창문을 다른
형태로 바꿔 공기유통공간을 넓힙니다. 그리고
환풍기를 설치합니다.

생리대자판기, 제대로 관리해야죠.

10대 총여학생회의 노력으로 생리대자판기가 전
농관과 배봉관에도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자판
기 수가 많아도 언제나 판매중지라면 문제겠지
요? 내년 2월에 커피자판기 아르바이트생을 교체
합니다. 그전에 복지위원회가 열리고, 복지위원
회에는 학생 6인, 교수 6인, 학복위원장 등이 참가
합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크다
는 것이지요. 생리대자판기는 여학우들에게 꼭필
요한 것입니다. 복지위원회가 열릴 때 총여학생
회에서 제기하고 생리대 자판기를 관리할 아르바
이트생을 구하겠습니다. 자판기 아르바이트생은
자판기 수익이 아니라 근로장학생과 비슷한 형식
으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

- ※ 올해 화장실에 붙은 생리대 싸서버리기 캠페인을 보셨겠지요?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잊기 쉬운 것들을 생활문화캠페인을 통해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 ※ 휴게실 실내화가 자꾸 줄어들입니다. 신고 나가기 때문이지요. 함께 쓰는 물건을 아끼고 공동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 ※ 자판기에 돈이 끼어도 찾아오는 학우가 적고 판매중지여도 총여로 연박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해주면 다음에 사용하는 학우들은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 휴게실에 같이 읽을 만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여에서 비치한 것이 아니라 어느 여학우가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읽을거리를 찾는다면 좋은 것입니다. 물론 생기는 것도 함께 해야겠지요.



편사고(思考)

편가르기만큼 위험한 사고방식도 없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 그 어디든 편가르기가 시작되면 불행해집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편을 내편으로 규정해 놓고는,
내편은 무조건 정의이고
내편이 아닌 쪽은 불의라고 생각해버리는
이 유치한 '편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가 내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쪽이 옳은가가 중요합니다.



용기종기 모여 같이 생각하고 토론해 봐야 할 이야기들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 여학생 모임
반쪽과 반쪽이 만나 하나될 수 있도록
나는 시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영희 현진효 전기운동본부

【모임이 없는 과 여학우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모임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과에 모임이 없는 여학우는 만나기 어렵고 총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관심도 들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학우들과 총여학생회를 잇는 끈이 없다고 해서 만나기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아야 할까요? 총여에서 어떤 일을 할때 그런 여학우들이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하고 함께 할 끼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학생모임이 없어서 불편하게 느끼는 여학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학생모임이 있어 좋은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임이 없는 과의 여학우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하면서 시대여성 한마당, 문학비평모임 등의 행사와 모임 속에서 여학생모임이 있고 여학우들끼리 하면 이런 점이 좋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고 그것으로부터 모임을 만들어가는 힘을 모으겠습니다.

【과에서 모임의 위치를 인정받고 사람들이 보다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학우들과 남학우들, 우리학교 전체 성원들의 눈을 좀더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표현과 창조' 제 3호에 수학과와 도공과 학생회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과여학생모임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여러가지 형태로 만나본 여학우들은 여학생모임을 인정해주지 않는 학우들 때문에 화도 내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돌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뚤어진 시선때문에 모임이 잘안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학우들 자신이 여학생모임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모임에서 하는 일도 없다든지 재미없다든지 하는 이야기들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임 속에서 일을 만들고 해나가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총여학생회에서는 모임에 대한 시각교정과 눈높이 맞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총여학생회는 편가르기를 하는 곳이냐고요? 반쪽과 반쪽이 만나 하나될 수 있도록...

【여성문제 자체가 편가르기를 가져오는가

총여학생회를 보는 학우들의 시선과 목소리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말로는 남학우와 여학우들이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편가르기를 하는 유치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정말 총여학생회가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성에 대한 편견을 고치려면 여학우뿐 아니라 남학우들에게도 알려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에 총여학생회는 "아니다 우리는 남학우들과 함께 하려한다" "모든 사업에서 열어놓지만 학우들이 지레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가지 이야기 모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성문제를 말하는 것 자체가 편가르기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민감하기도 하고, 또한 총여학생회는 남학우와 함께 해야 하지만 여학우들의 자치기구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려고

총여학생회에서는 남학우들과 함께 하기위해 모든 사업을 열어놓고 화장실 선전도 남녀 화장실 모두에 붙입니다. 그리고 남성문제로 대두되는 군대문제 등 기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우들의 반응이 편가르기한다고 나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성문제! 남성문제!

총여학생회는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중심내용이 여성문제라는 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 이외의 다른 부분은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학생회라면 좀더 많은 영역에 눈을 돌리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여성문제 이면에 남성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여성문제와 남성문제가 융합된 형태인지 분리된 것인지 모호합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 집행부가 여학생들뿐이어서 남학우들의 생각과 생활을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학우도 총여에서 일할 수 있나요?

울초 총여학생회에서는 남학우들을 집행부로 받겠다고 광고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총여학생회도 결실하게 필요성을 못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학우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남학우들의 의견과 생활을 잘 알아야되고 그것을 위해 남학생 집행부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지촌활동도 함께 가고 총여학생회에 관심이 있어 자주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는 남학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과 총여학생회 활동을 같이 한다면 말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남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생각도 정확하게 짚으며 한번 여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PC를 걸고 남학생 화장실에 선전물을 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총여학생회의 내용을 여

함께 나뉘어야 했습니다. 전혀 그런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여학우들의 복지문제만 꼼꼼하게 살피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의 학생회로 그리고 여학우 자신들의 기구로 생각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학생회의 역할을 다시 되돌려 생각해봅니다. 총여학생회가 여성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건 없건 간에 공통의 과제들에 대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 학생회는

학내문제에서 해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총장선출에서부터 교육여건과 생활개선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또 학원자주화투쟁이 있겠지요. 그러나 매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 시립대의 발전과 학생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제는 좀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회가 할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변화의 시기에서 학생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낼 수 있고 같이 고민할 거리를 학우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총여학생회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론은 항상 '일심히 하겠습니다. 학내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로 끝납니다. '항상하던 소리 또 하는 구나'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영화 한정효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학우들이 지적해 준 문제들을 풀어내는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다른 모습 독특한 어울림

거침하고 외려하고 세련된
무수한 '길도는 멀'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지식,
자신의 내면에서 식어져 나오는 글을 쓰자.
임을 빼기 보다 임을 솟게 하는 글,
'우리'를 만들어가는 어유와
즐거움 속에서 쓴 글,
생각을 풀어주고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글을 열이다.

이영화 한정효 선거운동본부